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어버이날 맞이 ‘짜장면 나눔’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5.05.08 17:13



어버이날 맞이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평창읍 후평리 마을회관에서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정서적 교감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단 ‘희망새미 봉사단’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리사 자격증 보유자, 조리 경력자의 재능기부로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에 마음까지 담아 40여 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했다.

공단은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최순철 공단 이사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직원들의 재능과 마음을 모아 따뜻한 한 끼를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공동체의 유대감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어버이날 맞이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